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에요

25면에서 계속

갑니까? 또 컴퓨터가 아무리 잘 보여 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지고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겁니다. 다 끊어져서. 또 보여 준다 하더라도 그놈의 거 보기만 하면 될 합니까? 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급할 때,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2(남): 스님, 반갑습니다. 울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어제 울산지원 법형제분들께서 금왕지원에 가서 철야정진을 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공부함에 있어 제가 즐겨 부르는 어느 이름 모를 선사님의 시인지 계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구절 외워 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흐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주인공을 놓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는 뜻을 자주 읽고 제 마음자리를 지켜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좌선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주인공 자리, 그 에너지도 보이지 않는 그 여전한 자리에도 항상 맡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나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한 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께서 제 마음자리를 심안으로 보셔서 그것이 정말 착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착이니 어찌니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까 그 시를 읊으시는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를 두고도 나를 모른다'고 했죠?

질문자2(남): 네.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큰스님: 글썽.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얼른 힌트를 알려 줄 양으로 저 나무 뿌리를 항상

방편으로 말을 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나무들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가지고도 자기 뿌리를 못 보고, 남의 나무 큰 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뿌리가 없다면 지금 선생님은 말도 못할 뿐더러 송장이에요. 그냥 송장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허허하... 그거를요, 개의치 마시고, 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이게 관하는 데 올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남의 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나 잘됐나,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요, 1시간씩이나 2시간씩이나 좌선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좌선 자리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행선도 참선이요, 서있어도 참선이요, 앉아있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대행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데 대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 신상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항상 남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모든 세상만물은, 나무부터 그렇지만 주인공, 즉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낮은 나도 중생이고 모든 것이 중생인데, 중생들은 삼계(三界)에서 항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지 않으면 더 죄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진화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삼계를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해야 대자유를 얻고, 쉽게 말하면 삼계를 벗어나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업을 통하여

가면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 그분이 바로 여기들 이렇게 전부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도리를 알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자3(남): 아,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깨달은 나 자신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큰스님: 부처님의 그 마음은요, 원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입자가... 이 일체 만물만생이다 입자거든요. 입자니까 전부 자기가 입자 아님이 없고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생명 아님이 없으니까 뭐, 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또 죽었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좀 치밀히 해 보시면 그 차원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큰스님: 지금 맥이 말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잘나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잘나 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잘나 생활하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질문자3(남): 그렇다면 여러 불자님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겠지만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뭘니까? 내가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큰스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벌써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고정된 게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지금 현 생활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제도 없는 게 지금 돌아가는데, 수레바퀴처럼 체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뭐가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다. 그대로 여여하게 잘나 생활에 그대로 살아 계시다, 이런 뜻이죠.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큰스님: 네? 다 끝났습니까? 질문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하겠다는 얘기도요? 허허하...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앉혀 놓고 했으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또 그게 아니든 맞든 모두 우리가 참작하고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인내력을 기르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하루 몇 시간씩이나 이렇게 소비해 버렸으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내 몸을 바로 금 갑옷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허하... 금 갑옷 있죠? (합장하시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허허하...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6년 7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앓아 있어도 헛앓아 있는 것입니다

해도 참선이요, 누워서 자도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어라' 하는 뜻이죠.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거죠.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앓아 있어도 헛앓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나 30분 동안 앉아서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질문자3(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원에서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법우입니다. 제가 대구지원에 나오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이내거든요. 그런데 대행 스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8년 전에 어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행 스님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마스크를 통해 가끔 소식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침내 인연이 되어서 그러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진화가 계속돼서 마침내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성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근본자리로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삼계가 아닌 단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세계에 머무는 건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윤회를 하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면 자유롭게 다시 삼계의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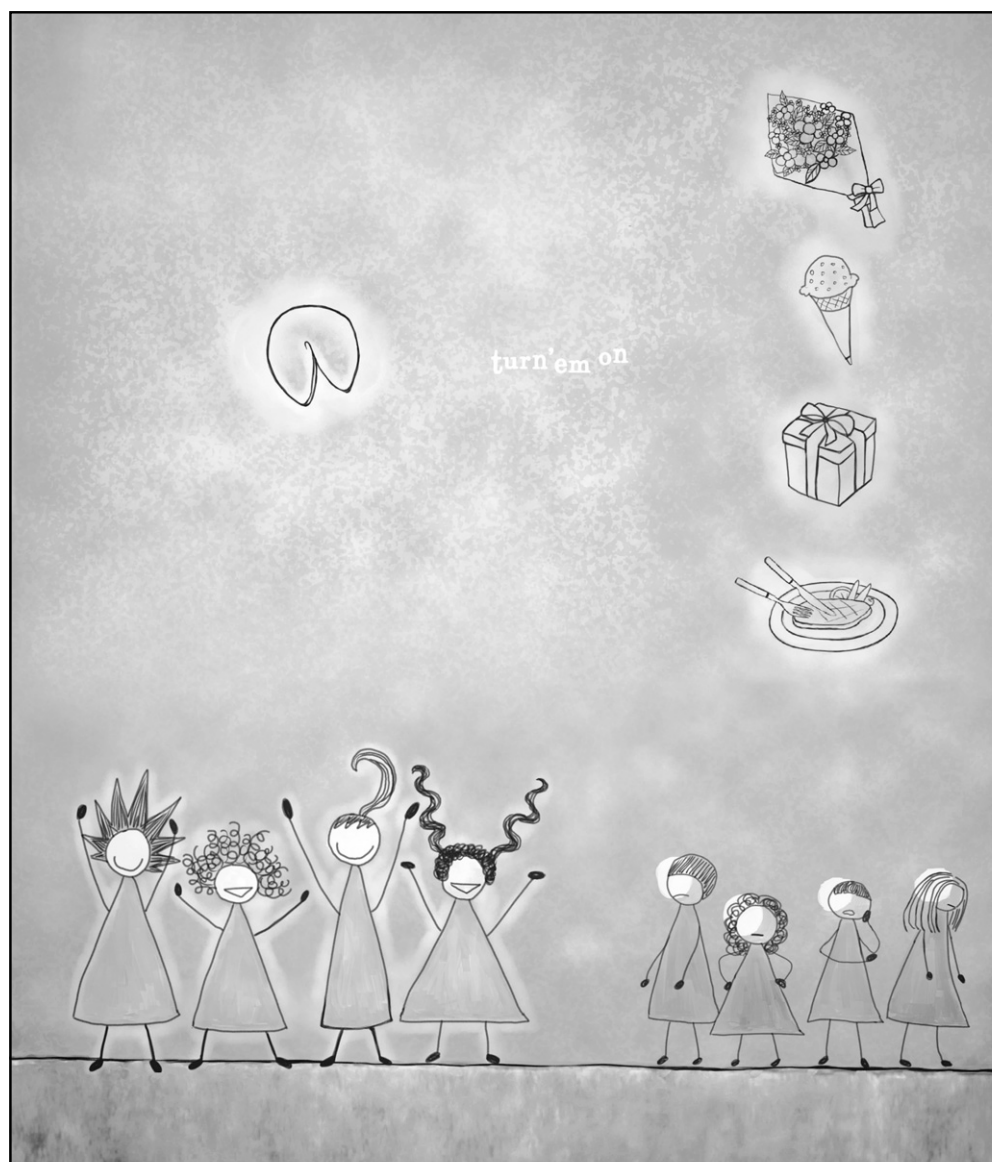
큰스님: 허허하... 삼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 돌아올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자3(남):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육체를 벗게 되면 의식 자체로 남아서 계속 윤회한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

질문자3(남): 원래의 근본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약간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든가, 나라는 그 자체를 구성한 여러 덩어리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면 힘이 듭니다.

큰스님: 그거는요, 이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이 마음 없는 마음의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아니라, 백 년 전 아니라 언제라도, 그 미래하고도 현재하고도 과거하고도 이렇게 상통이 되고 일체가 다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합쳐지고 펼쳐지고 자유자재하죠, 이렇게. 맥이 부처님을 놓고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질문자3(남): 그렇다면 그 논리적으로 있잖아요...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